

사회 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시간 : 30분

점수 : 50점

성명

수험 번호



1.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옳은 것은?

제자 : 개인에게 있어서의 정의란 무엇인가요?
 스승 : 영혼의 각 부분들이 서로 다른 영혼들을 참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자 : 그렇다면 영혼들이 독립적으로 있을 때 정의롭다는 것이가요?
 스승 : 자신의 영혼의 부분들을 잘 조절하고, 음계의 세 음정인 최고음, 중간음, 최저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영혼의 세 가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 ① 일체의 욕구를 모두 부정해야 한다.
- ② 행복한 삶을 위해 감정에 충실해야 한다.
- ③ 이성으로 기개와 욕망을 통제해야 한다.
- ④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
- ⑤ 철학적 지혜가 정치권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가)를 주장한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선(善)은 도리에 들어맞고 평화롭게 다스려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참으로 사람이 나면서부터 도리에 들어맞고 평화롭게 다스려질까? 그렇다면 성왕(聖王)이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예의(禮義)는 또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나)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A)</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B)</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able> <p>[가로 열쇠] (A) : 고대 중국에서 중시되었던 개념. 예법과 음악 (B) : 덕(德)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 ○○주의</p> <p>[세로 열쇠] (A) …… 개념</p>								(A)				(B)								
		(A)																			
	(B)																				

- ① 모든 도덕 판단의 최종적 준거이다.
- ②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개이다.
- ③ 선천적 덕성으로 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④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이다.
- ⑤ 인간의 욕망을 조절하기 위한 통치 방식이다.

3. (가)를 주장한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성인(聖人)은 시비(是非)에 얽매이지 않고, 천(天)에 비추어 본다. 이것과 저것의 상대적인 대립 관계를 넘어서고, 그 대립이 없어진 경지를 좇는다. 그 경지는 만물이 가치의 측면에서 똑같이 평등하고 소중하다.
(나)	㉠. 그러면 도(道)와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다.

- ①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라
- ②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도덕성을 지극하게 하라
- ③ 성인이 제정한 예를 배워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라
- ④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언제나 도덕적 각성 상태를 유지하라
- ⑤ 형체와 마음을 잊고 감성적 지각과 이성적 분별을 버려라

4.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우리가 선한 것을 안다면 그것을 추구할 것이며, 그릇되게 행위 한다면 그것은 항상 비자발적이며 무지의 결과이다. 덕은 곧 지식이며 어떤 것도 덕이 있는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없다.
 을 : 인간은 만물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의 기준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기준이다.

- ① 갑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개별적 존재가 아닌 보편적 존재가 삶의 기준이 된다고 본다.
- ③ 갑과 달리 을은 도덕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본다.
- ④ 을과 달리 갑은 덕이 행위의 지속적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이성보다 경험이 도덕적 삶의 원천이 된다고 본다.

5. 고대 중국 사상가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 옛날에 도(道)를 실천하는 자는 백성들을 영리하게 하는 대신 우직하도록 했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지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해가 되고 지혜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복이 된다.
 을 : 옛날에 큰일을 했던 임금에게는 함부로 불려들이지 못하는 신하가 있었다. 의논하고 싶을 때에는 임금이 직접 가서 그 신하를 만났다. 신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도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와 함께 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은 덕(德)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王道) 정치를 해야 한다.

- ① 도덕과 예의에 맞춰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교화해야 하는가?
- ② 사회 성원 각자가 신분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는가?
- ③ 온 세계가 한 가족처럼 지내는 도덕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 ④ 인의를 해쳐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폭군은 제거되어야 하는가?
- ⑤ 백성들이 본성대로 살도록 예약 제도를 시행하지 말아야 하는가?

【6~7】 갑, 을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 주희는 “사단(四端)은 이(理)의 발이고, 칠정(七情)은 기(氣)의 발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이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이의 발이라고 한 것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을 : 주희가 “이(理)에서 발한다. 기(氣)에서 발한다.”고 한 본 뜻은 사단은 오로지 이만을 말하고 칠정은 기를 겸(兼)하여 말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6.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 갑 : 사단과 칠정의 연원을 같다고 보아서 안 된다.
- ② 갑 : 이는 형태와 작용이 없고 기는 형태와 작용이 있다.
- ③ 을 : 이에 동정이 있기 때문에 기에도 동정이 있다.
- ④ 을 :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있지만 칠정은 사단을 겸하지 못한다.
- ⑤ 갑, 을 : 이는 기의 동정에 따라 선하거나 악하게 될 수 있다.

7. 다음 한국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단은 인성(人性)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며, 사덕(四德)은 사단을 확충한 것이다. 확충하지 못하면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이름은 끝내 성립될 수 없다.

- ① 사단도 칠정과 마찬가지로 기가 발한 것이다.
- ② 사단도 칠정과 마찬가지로 악으로 흐를 수도 있다.
- ③ 사단은 주어지는 것이고 사덕은 획득되는 것이다.
- ④ 사단은 사덕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작용으로 얻어진다.
- ⑤ 사단은 인성에 사덕이 내재함을 알게 해주는 실마리이다.

8.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 앞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여 신 앞에서 선 단독자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자각할 때 자신의 참모습에 이르게 됩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에게 미리 정해진 본질은 없습니다. 인간은 먼저 실존한 후에 자신의 참모습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 ① 갑은 실존적 상황에서는 오직 주체성만이 답을 줄 수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도덕적 규범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자신의 참모습을 찾게 된다고 본다.
- ③ 을은 자신의 실존에 앞서 인간의 본질을 먼저 주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④ 을은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본다.
- ⑤ 갑과 달리 을은 신과 무관하게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9. 서양 사상가 갑~병 모두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것은? [3점]

갑 : 신으로부터 영광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 지상의 국가는 자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신을 경멸함으로써, 천상의 국가는 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신조차 경멸함으로써 형성된다.

을 : 신의 영원한 법칙이 인간의 본성에 반영된 것이 자연법이다. 우주를 창조하는 원리로서의 신의 지혜는 모든 것들이 신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하는 법칙이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생겨난 법 또한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병 : 신의 본성의 필연성과 자연의 영원한 법칙과 규칙들에 의해 모든 것이 생겨난다는 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인간의 덕이 허용하는 한 올바르게 행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질문	갑	을	병
①	신은 자연의 필연적 법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예	예	예
②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	예	아니요	아니요
③	신과의 완전한 합일은 내세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가?	예	아니요	아니요
④	신만이 유일하게 자유 의지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⑤	신은 만물의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인가?	아니요	아니요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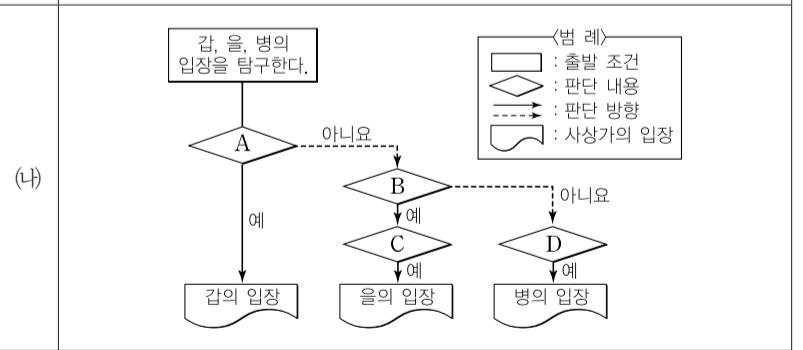
10. (가)의 갑~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국가는 몇 개의 촌락이 커다란 하나의 완성된 공동체로 결성될 때 비로소 나타난다. 국가는 자연의 창조물이며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을 : 국가는 전쟁 상태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다.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줌으로써 국가가 만들어진다.

병 :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자연 상태는 비교적 평화롭지만 개인이 자연권을 향유하는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보기>

ㄱ. A —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가?
 ㄴ. B —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통치 권력은 절대적이어야 하는가?
 ㄷ. C — 개인은 국가의 모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
 ㄹ. D — 명시적 동의만이 정치적 의무의 전제 조건이 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1.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강조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도덕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윤리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적 추론의 우선성에 도전하는 가운데 동기화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하나의 결정에 도달하는 데 사용되는 추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태도와 기능의 계발,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열망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배려에 근거한 도덕적 의사 결정은 추상화 과정보다는 구체화 과정을 요구한다.

- ① 도덕성 발달의 핵심은 도덕 판단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 ② 인간관계를 고려하기보다는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힘써야 한다.
- ③ 남성과 여성의 도덕성은 다르지 않으므로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언제나 보편 타당하고 절대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⑤ 어머니 마음과 같은 자연스런 감정을 도덕의 원천으로 보아야 한다.

12. 중국 사상가 갑, 을 모두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것은? [3점]

갑 : 아버지를 보면 자 nhiên히 효도를 알고 형을 보면 자 nhiên히 공경을 알며,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자 nhiên히 측은함을 안다. 이것이 양지(良知)로서 곧바로 실행되니, 행(行)하지 않으면 지라고 할 수 없다.

을 : 지(知)와 행(行)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공부하면 다른 쪽에 병폐가 생긴다. 이는 마치 눈은 발이 없으면 가지 못하고 발은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굳이 앞뒤를 논하면 지가 앞이고, 경중을 논하면 행이 무겁다.

	질문	갑	을
①	사람 마음에는 이(理)가 내재하는가?	예	예
②	인간의 성(性)은 하늘이 부여한 이(理)인가?	예	아니요
③	이론적 학습을 거쳐야만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가?	예	아니요
④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인욕(人欲)을 제거해야 하는가?	아니요	예
⑤	사람 마음에는 개별 사물의 이(理)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니요	아니요

13.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도덕 명령은 어떤 욕구에도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이며, 변화하는 우연적인 욕구와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절대적이다. 도덕 명령은 행위의 내용이나 예상되는 결과와는 무관하며 오직 행위의 형식과 명령의 근거가 되는 원리와 관련된다.

을 : 도덕과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뿐이다. 유용성만이 정당한 행위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행위가 행해진 이유나 원인을 말하는 것은 그 행위가 왜 행해졌는지를 말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

- ① 감정보다 이성을 따르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다.
- ② 자연적인 경향성을 따르더라도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도덕적인 인간은 준칙보다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 ④ 인간은 누구나 이성 안에서 도덕적 의무의 이념을 발견할 수 있다.
- ⑤ 인간의 자유가 갖는 자율성 때문에 인간은 도덕 법칙의 주체가 된다.

14. 다음은 어느 학생의 수행 평가지이다. 밑줄 친 ㉠~㉣ 중 옳지 않은 것은?

수행 평가

[문제]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것은 그것이 두렵다는 사람들의 판단이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동요와 슬픔 때문에 방해받는다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의견과 판단에 돌리도록 하자.

을 :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존재하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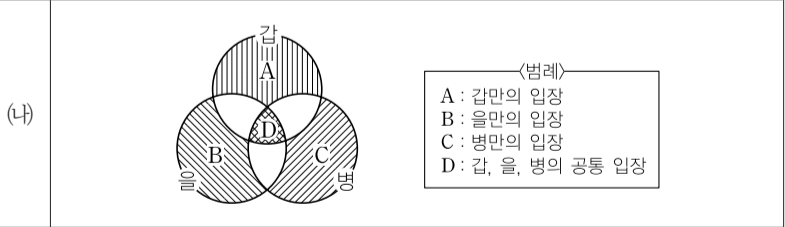
[답안]

강은 ㉠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행위의 의지라고 주장하였다. 을은 ㉢ 심신의 불일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였으며, ㉣ 쾌락을 성취하는데 이성의 역할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강, 을은 모두 ㉤ 평온한 마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가)의 서양 사상가 갑~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소유 권리론은 한 집단의 소유 상태를 생성하기 위한 과정을 명시한다. 이 과정의 기저를 구성하는 취득, 양도, 교정에 있어서의 원리는 정형적 원리라기보다는 과정적 원리들이다.
 을 :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자는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자의 여건을 향상시켜 준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다.
 병 :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공동체마다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보기>

- ㄱ. A —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는 바람직하지 않다.
- ㄴ. B — 우연성을 배제한 가상 상황에서 분배 원칙을 도출해야 한다.
- ㄷ. C — 부의 공정한 분배보다 기본적 자유의 보장이 우선한다.
- ㄹ. D —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해도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6.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도덕은 정념을 자극하여 어떤 행위를 산출하거나 억제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성인 그 자체만으로는 전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정념은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도덕적 신념들은 이성이 단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욕구들의 결과이다.

학생	갑	을	병	정	무
도덕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			✓	✓
도덕성의 기초인 공감을 통해 자기 중심적 관점을 극복할 수 있다.	✓	✓		✓	
도덕적 행동과 관련하여 이성은 어떤 역할도 못한다.		✓	✓		✓
도덕의 기준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한 쾌감이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7.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진리는 넓고 탕탕하여 걸림이 없고 범주가 없다. 영원히 의지하는 바가 없기에 타당하지 않음이 없다. 따라서 모든 논쟁은 조화될 수 있다(화쟁(和諍)). 그런데 자신이 조금 들은 바 좁은 견해만을 내세워, 그 견해에 동조하면 좋다고 하고 반대하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마치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이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보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늘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

<보기>
 ㄱ. 글을 통해 이론을 공부해야만 진리를 알 수 있다.
 ㄴ. 각각의 이론은 모두 진리의 특정 부분을 담고 있다.
 ㄷ. 다양한 이론은 모두 하나인 마음의 진리의 펼침이다.
 ㄹ. 모든 이론 및 종파의 특수성이 제거되어야 조화가 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서양 사상가 갑에 비해 을이 강조할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개인과 사회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이며 영원한 유일한 요소는 자유이다. 그리고 각 개인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자의 개별성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을 : 개인의 자격만으로는 선을 탐구할 수도 없고 덕을 실천할 수도 없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기>
 ㄱ.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독립적 주체이다.
 ㄴ. 개인은 공동체의 전통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ㄷ. 개인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역사적 책무도 부담해야 한다.
 ㄹ. 개인의 신념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중립적 입장에 서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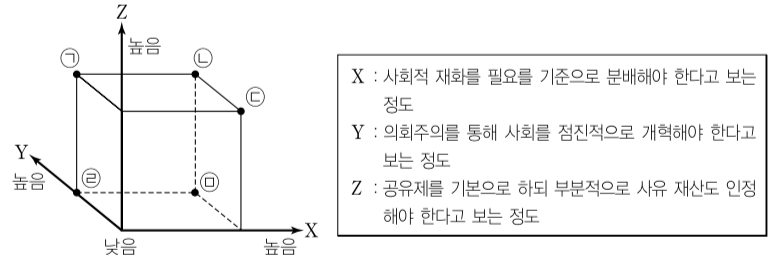
갑 : 서양 물건이야말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문물 중에서 해로움이 가장 심한 것이다. 임금께서 서양의 옷, 기차재 등을 모두 찾아내어 모조리 태워 없애서 임금의 뜻을 명확히 보여야 할 것이다.
 을 : 서양 사람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분별이 없으며 다만 제 몸만을 위해 빌 뿐이다. 우리의 가르침은 그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한울님 성품을 거느리면 자연스럽게 조화가 나온다. 이것이 우리와 저들의 차이이다.

<보기>
 ㄱ. 갑은 서학의 침투가 우리 사회에 위기를 야기한다고 본다.
 ㄴ. 을은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고 있다고 본다.
 ㄷ. 갑과 달리 을은 고유 사상을 토대로 사회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ㄹ. 을과 달리 갑은 유교적 질서를 수호하며 서양의 물질 문명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공산주의의 당면 목적은 프롤레타리아를 계급으로 형성시키고, 부르주아의 지배를 뒤엎으며, 프롤레타리아의 손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이론은 사적 소유의 철폐라는 한 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나) 사회주의는 정치적으로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적인 수단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하며,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사적 이윤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제도로 대처하려고 노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